

한국 중소기업 대중투자 파산요인분석

유일선 *

A Study on Why Korean S&M Enterprises Go Bankrupt in China

Il-Seon Yoo

Abstract

When it comes to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o China, several 'stylized facts' are found. First, most of Korean FDI to China is being made by small and medium(S&M) sized enterprises. Second, Korean S&M firms mainly invest on the labor intensive industry. Third, the Korean firms earn relatively low yield rate. Fourth, even though FDI increases rapidly, the number of bankrupt firms also goes up.

My focus is on the fourth fact which leads to questioning why such a thing happens if FDI are rationally decided. To explain explicitly, I build up an analytical model in the premise that total cost consists of production cost and transaction cost. Due to unperception of the transaction cost when investment is decided to make, there'll b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expected quantity in investment and the production quantity. So the more firms perceives the transaction cost before investment, the less firms will keep excess capacity and go bankrupt. Some cost, however, is required to recognize it.

This model shows that lack of information about transaction cost causes the Korean S&M sized enterprises to go bankrupt. So the following policies based on promoting the information are suggested : investment accompanied by large company, researches on the Chinese market and training of specialist on China.

Key words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duction cost, transaction cost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1. 서론

1978년 개혁개방선언 이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였다. 즉 중화학공업육성을 우선 시하는 전형적인 계획경제체제였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화학공업분야의 생산물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경공업분야의 상품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중화학 분야의 국영기업에는 만성적인 과잉생산능력(surplus capacity)을 갖게 되었고 반면 경공업분야에서는 만성적인 초과수요에 직면하였다. Fan, Lunati & O'connor(1998)은 중국의 국영기업의 노동력 1/3 이상이 모두 잉여노동력일 정도로 중국의 생산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여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주축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밌효과'(push effect)와 중국의 '당김효과'(pull effect)가 상호작용하여 1980년 후반부터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92년 8월 한 중 수교를 시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의하면¹⁾ 한국수출입은행(2005)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 12월말 현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건수로는 3,762건이고 금액으로는 총투자기준으로 5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중 직접투자의 비중은 건수로 57%, 금액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국가로서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반면 철수하는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된 금액이 2억 8,000만달러로 전체 청산금액 누계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한해 만 발생한 청산 및 철수한 금액이 1억 1,300만 달러로 3년간 총 청산 및 철수금액의 누계는 약 3억 7,000만달러에 이른다. 즉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실패로 인해 청산 및 철수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중소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도 많이 하면서 철수하는 기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틀 안에서 설명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의 의사결정과 또 한편에서 이루지고 있는 기업의 철수결정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경제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것의 껍을 매꿀 수

1) 한국수출입은행(2005)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2.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2.1 대중투자에서 한국의 위상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초기에는 홍콩 등 화교자본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서구국인들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표2-1>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주요국들의 대중 직접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2-1> 중국의 각 국별 외국인 투자비중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홍콩	68.2	62.8	58.4	53.5	49.6	45.6	40.7	40.6	38.1	35.7	33.9
미국	4.6	7.4	7.3	8.2	8.3	7.2	8.6	10.5	10.8	9.5	10.3
일본	6.4	4.9	6.1	8.3	8.8	9.6	7.5	7.4	7.2	9.3	7.9
대만	9.5	11.3	10.0	8.4	8.3	7.3	6.4	6.4	5.6	6.4	7.5
한국	1.1	1.4	2.1	2.8	3.3	4.7	4.0	3.2	3.7	4.6	5.2
싱가포르	1.1	0.2	3.5	4.9	5.4	5.8	7.5	6.6	5.3	4.6	4.4
독일	0.8	0.2	0.8	1.0	1.2	2.2	1.6	3.4	2.6	2.6	1.8
영국	0.3	0.8	20.3	2.4	3.1	4.1	2.6	2.6	2.9	2.2	1.7
프랑스	0.4	0.5	0.6	0.8	1.0	1.0	1.6	2.2	2.1	1.1	1.1
캐나다	0.5	0.5	0.6	0.7	0.8	0.8	0.7	0.8	0.7	0.9	1.1
마카오	1.8	2.1	1.5	1.2	1.4	0.9	0.9	0.8	0.9	0.7	0.9
이탈리아	0.2	0.4	0.6	0.7	0.4	0.5	0.6	0.5	0.5	0.5	0.3
기타	4.9	7.5	6.4	7.1	8.5	10.5	17.4	15.2	19.8	22.0	23.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중국 전체 외국투자 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행액 기준으로 'IMF쇼크'를 경험한 1997-1998년을 제외하고 199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5.2%에 이르렀다. 이것은 홍콩, 미국,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로 홍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위의 중국 중요 투자국이 되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들의 직접투

자액이 정체 내지 증감이 불안정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비된다.

또한 1992-2002년 동안 국가별 대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연평균 36.7%의 증가율을 보여 37%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두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²⁾ 이것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2.2 연도별 추이

한국의 대중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선진국들에 비해 10년정도 늦게 이루어졌다.³⁾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대중투자의 1단계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업규모별 대중투자현황을 보면 한중 양국의 국교수립 직후인 1993년까지는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한국 전체의 대중투자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중투자는 조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중소기업 대중투자의 조정폭이 한층 커서 199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그때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1995년의 33억9천만 달러의 1/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를 거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는 2000년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2004년에는 건수는 감소했는데 금액은 45%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의 투자규모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김홍석 이용주(2003) p44

3)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스물산(1985)이 홍콩을 우회하는 투자형태로 광둥성에 봉제 완구공장의 설립을 시초로 1988년까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홍콩과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한 우회투자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진웅(1988)이 중국 샤먼(廈門)지역에 300만달러를 직접투자한 것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표 2-2〉 한국의 대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전 체		중 국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	270	573	7	6	3	1	4	5
1990	340	959	24	16	16	9	8	8
1991	446	1116	69	42	59	27	9	15
1992	497	1219	170	141	156	86	14	55
1993	688	1263	381	264	335	189	36	72
1994	1488	2303	841	633	705	283	92	344
1995	1328	3136	751	841	603	339	91	493
1996	1465	4409	733	901	488	309	73	568
1997	1322	3594	630	725	448	156	50	550
1998	614	4726	263	678	175	82	20	588
1999	1088	3279	457	349	283	84	11	248
2000	2058	4856	766	613	555	175	14	414
2001	2116	5036	1028	576	737	286	16	256
2002	2406	3046	1331	891	912	443	29	386
2003	2790	3797	1679	1643	1159	884	46	676
2004	3762	5715	2150	2290	1103	1283	74	8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해외통계정보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 증가세는 대기업의 대중투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대기업의 대중투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55억 달러로 1996년에 비해 3.2% 감소, 1998년에는 오히려 58억 8천만 달러로 7.0% 증가, 다시 1999년에는 21억 4천만 달러로 급감, 2000년에는 41억 4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는 등 1년 증가후 1년 감소하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다가 2003-2004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중투자는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대기업의 대중투자를 앞지르고 그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1990년대 초반 대중투자 초기단계에 이어 다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한국 전체 대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표2-3〉 중소기업 대중투자의 위상

단위 : %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중소기업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대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투자		순투자		총투자		순투자		총투자		순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	1.1	0.2	1.2	0.2	2.1	1.2	2.2	1.3	42.9	15.1	42.9	15.1
1990	4.7	0.9	5.1	1.0	8.3	5.0	8.6	5.1	66.7	52.7	66.7	53.4
1991	13.2	2.4	14.1	2.7	21.4	14.4	22.1	14.7	85.5	64.3	85.5	64.3
1992	31.4	7.0	34.3	7.8	42.4	34.3	44.3	36.7	91.8	60.8	91.8	60.7
1993	48.7	15.0	54.0	18.6	62.5	58.5	65.8	63.3	87.9	71.8	87.9	72.4
1994	47.4	12.3	49.8	13.6	61.6	52.6	63.0	58.4	83.8	44.7	84.1	44.4
1995	45.4	10.8	48.5	11.7	63.5	52.4	66.1	58.1	80.3	40.2	80.1	40.1
1996	33.3	7.0	34.5	8.0	56.4	39.9	58.3	41.0	66.6	34.3	66.1	34.8
1997	33.9	4.3	35.2	4.5	57.3	30.3	59.2	31.6	71.1	21.5	70.4	21.7
1998	28.5	1.7	31.1	2.1	50.4	29.5	52.2	39.4	66.5	12.1	66.4	12.6
1999	26.0	2.6	27.5	3.5	47.2	17.3	48.5	21.9	61.9	24.1	62.2	36.2
2000	27.0	3.6	28.0	4.9	42.5	7.6	42.9	7.6	72.5	28.6	73.2	51.5
2001	34.8	5.7	36.3	15.3	55.3	34.1	56.8	108.4	71.7	49.7	72.4	127.5
2002	37.9	14.5	39.5	20.4	60.4	42.1	61.7	45.6	68.5	49.7	68.8	55.1
2003	40.2	19.4	41.5	21.9	67.8	58.6	69.3	59.1	68.4	57.8	68.7	60.3
합계	33.0	6.9	35.1	8.8	53.1	31.3	55.1	35.4	72.8	39.5	73.0	4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03년 1-11월 동안의 수치임.

대중투자의 증대에 따라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투자액 기준으로 2002년에는 29.2% 수준에 이르렀고 2003년에는 33.5%로 증가하였다. 이중 2002년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투자건수 기준으로 37.9%, 총투자액 기준으로는 14.5%를 차지하는 등 최근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전체 중소기업 투자건수와 투자액의 각각 60.4%와 4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전체 대중투자 건수의 68.5% 그리고 대중투자액의 57.8%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대중투자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2.3 업종별 분포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4년 12월말 현재 제조업부문이 금액기준으로 20억 6천

만 달러(허가기준)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기타 제조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 집중(금액기준 42.2%)되어 있는데, 조립금속 업종도 노동집약적인 생산라인을 갖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중국투자의 50% 이상이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왔던 원인은 첫 번째로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진출이 대부분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뒤 제 3국 혹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비제조업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과 같은 3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왔음에도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는 지난 2001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서비스 부문 투자제한 완화에 따라 부동산 개발, 무역업, 음식, 숙박업 등 3차 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의 경우도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1년만 하더라도 허가금액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0.2%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는 3%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1996년에는 9.7%로 높아 졌고 2002년 16%대까지 이르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4년 중국정부의 금융긴축정책 발표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다시 2.6%대로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3차 산업에 대한 중국 내 수요의 증대 및 중국정부의 WTO 가입에 따른 관련분야의 시장개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영향과 함께 때문에 3차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는 훨씬 넓어져 한국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증대, 투자동기의 다양화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4〉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비중(2004년 12월말 현재)

(허가기준, 백만불, %)

구분	업종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31	1.4	11.4	0.5
	광업	12	0.6	2.8	0.1
	제조업	1,680	78.1	2,062	90.0
	건설업	23	1.1	33.4	1.5
	도소매업	93	4.3	89.5	3.9
	운수 창고업	5	0.2	1.7	0.1
	통신업	4	0.2	0.5	0.0
	금융 보험업	0	0.0	0.4	0.0
	숙박 음식점업	94	4.4	19.2	0.8
	부동산 및 서비스업	208	9.7	59.2	2.6
	기타	0	0.0	9.1	0.4
	합계	2,150	100.0	2,29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해외통계정보

2.4 청산 및 실패기업 현황

최근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청산 및 철수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최초로 대중국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2001년 6월말까지 신고된 대중 투자 청산 및 철수금액의 누계는 약 3억 7,000만 달러이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신고된 금액이 2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청산금액 누계의 75%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중 대 중국 투자 청산금액은 전체 해외투자 청산금액의 1/3에 달하였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1998년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청산금액은 1,1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1억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10배나 급증하였는데 2000년에는 6,100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가 2001년에는 1억 1,130만 달러를 기록하는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대중투자 청산의 경우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체 대중투자 대비 비중은 1992-2003년 11월 현재 건수기준으로 1.9%, 금액기준으로는 2.6%이며, 전체 대중투자 청산건수의 62.4%, 청산금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청산건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2-5〉 한국의 해외투자잔액 및 철수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잔액	5,442	7,472	10,233	13,828	16,821	20,262	22,337	25,819	26,261
	청산	245	270	311	653	237	453	476	196	184
대중국	잔액	467	1,089	1,899	2,699	3,312	3,931	4,135	4,381	4,458
	청산	2	10	14	36	20	11	105	61	113
비중(%)	잔액	8.6	14.6	18.6	19.5	19.7	19.4	18.5	17.0	17.0
	청산	0.8	3.7	4.5	5.5	8.4	2.4	22.1	31.1	6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2)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전체 청산금액에서 중소기업 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6.7%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중소기업의 청산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산금액에 비해 청산건수가 높다는 사실은 다수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중국투자 실패의 경험을 맛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6〉 중국투자 중소기업의 청산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

	총투자		총투자		총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0	638	0.0	0.7	-	100.0
1993	2	220	0.6	0.1	100.0	9.5
1994	5	5,979	0.7	2.1	55.6	61.1
1995	9	7,408	1.5	2.2	100.0	50.1
1996	19	7,973	3.9	2.6	82.6	22.3
1997	18	4,407	4.0	2.8	94.7	16.7
1998	11	3,923	6.3	4.8	68.8	6.6
1999	11	3,421	3.9	4.1	55.0	2.7
2000	5	4,501	0.9	2.6	33.3	1.6
2001	14	10,569	1.9	3.7	48.3	1.3
2002	15	10,037	1.6	2.3	53.6	9.5
2003	0	18,745	1.1	3.4	47.4	26.7
합계	118	77,821	1.9	2.6	62.4	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더욱이 확인된 청산과 달리 확인되지 않은 청산이나 실패도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투자 청산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실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투자청산이 늘어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요약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중 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청산기업들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 한국중소기업 대중직접투자 모형

3.1 기존연구

많은 대중투자에 대한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대중 직접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동기 및 원인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박동렬(1995)은 숙련공 임금이 한국 숙련공의 10.4%, 비숙련공의 임금은 9.4%인 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2000)은 중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동기를 현지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현지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88.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송재훈(2003)은 5점척도분석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의 낮은 생산비용'이 설문대상기업의 평균 4.64점으로 1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새로운 현지시장의 개척'의 3.97과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홍석 이영주(2003) 산업연구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가 저임금노동력 확보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행한 기존연구를 보면 주로 한국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대중 직접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동기 및 원인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실패와 그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를 보면 김인수(1999)는 한국기업의 경우 군중심리적 투자형태(herding behavior)를 보이고 낮은 R&D 수준으로 조그만 시장위험에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송재훈(1999)의 경우 "기업특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의 부족 등을 통해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 김운태(1999)는 중국 복건성의 대만기업과 중국 산둥성의 한국기업을 비교하여 중국 현지적응에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방식에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거래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김기현(2000)은 대중 직접

투자시 즉 파견인력의 부족과 적응문제, 현지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노무관리의 어려움, 전반적인 경영능력의 부족 등 내부적인 요인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현지금융의 어려움, 현지의 원부자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적기조달의 차질, 납품수량의 부족 등 내부요인을 들고 있다. 전경태(2002)는 한국기업은 타국가의 기업보다 노사갈등이 심하고 노사분규가 잦다는 것이다. 한국기업 관리자의 친절, 겸손 정도가 낮고 교육 문화산업, 통역 및 직원 훈련원과 병원의 건립, 출연금 기부 등 현지화 노력을 등한시하고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홍석 이영주(2003)는 대중 직접투자의 문제점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국 중국투자기업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비용추구형 투자성향이 강하여 현지시장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청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현지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결과로 보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현지적용비용으로 규정하고 중국현지 한국기업에 설문조사방식으로 현지적용비용의 존재여부 그리고 현지적용비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즉흥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시장 전망과 현지 소비수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상관습과 상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의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즉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와 대중국 직접투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또한 현지생산에서도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노리고 진출했으나 중국의 빠른 임금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같은 현지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투자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수익성이 낮은 대중 투자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한국기업이 투자결정시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생산 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모형설정

대중 직접투자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투자요인은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고 중국시장과 문화에 대한 정보와 위험에 대한 분석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후 거래비용형태로 현지적용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한국중소기업의 투자형태를 전제로 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여기서 분석대상은 규모가 비슷한 중소기업이며 제품차별화를 인정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전제로 한다.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

제하기 때문에 기대이윤($E(\pi)$)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즉 예상 수익($E(R)$)에서 예상비용($E(C)$)의 차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식(1)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1) E(\pi) = E(R(Q)) - E(C(Q))$$

여기서 총비용은 생산비용과 거래비용 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비용은 임금, 원료와 자본재 등 생산요소구입비용이다. 여기서 거래비용은 생산요소구입비용이외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즉 거래비용은 유통판매비용처럼 생산량과 관련부담과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 비즈니스 환경 및 관행의 차이, 그리고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환경에 대한 비친숙성,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차별적 태도로 생산량과는 무관한 현지경영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식(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2) E(\pi) = E(R(Q)) - \{E(C_p) + E(C_T)\}$$

여기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각 개별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수익과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다 ($E(C_T) = 0$)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투자 후 현지에서 생산을 할 때는 거래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된다고 가정한다.⁴⁾ 그러면 기업의 이윤방정식은 투자결정시와 현지생산시의 이윤방정식은 식(3)과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3) \text{투자시 이윤방정식} : \pi = R(Q) - C_p(Q)$$

$$(4) \text{생산시 이윤방정식} : \pi = R(Q) - \{C_p(Q) + C_T(Q)\}$$

3.2.1 정태모형(static model)

이제 한국기업이 투자결정시에는 기대이윤을 극대화하고 현지생산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각각 계획생산량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실제생산량이 결정될 것이다.

$$(5) MR(Q) = MC_p(Q)$$

$$(6) MR(Q) = MC(Q) = MCP(Q) + M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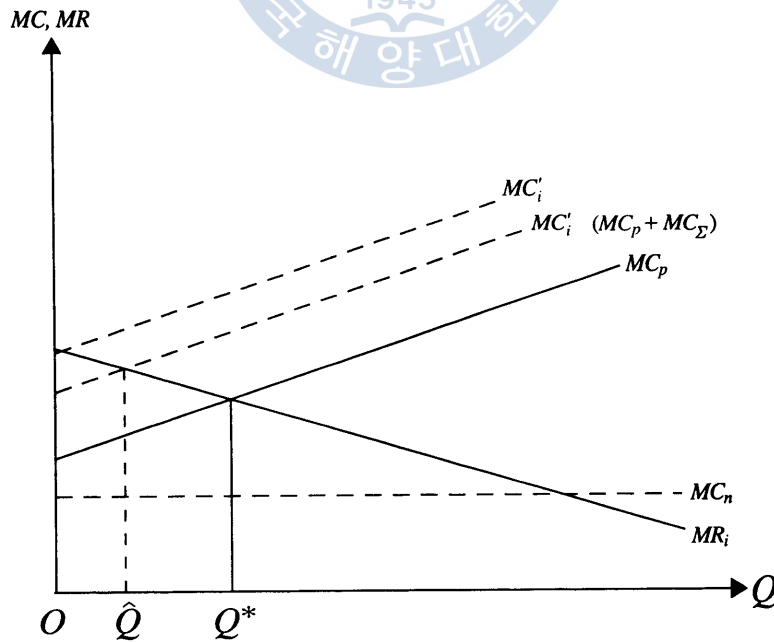
여기서 모형을 간단히 하기 위해 한계거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림3-1>을 개

4) 한국중소기업은 다른 요인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임노동력을 활용을 위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연구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가정에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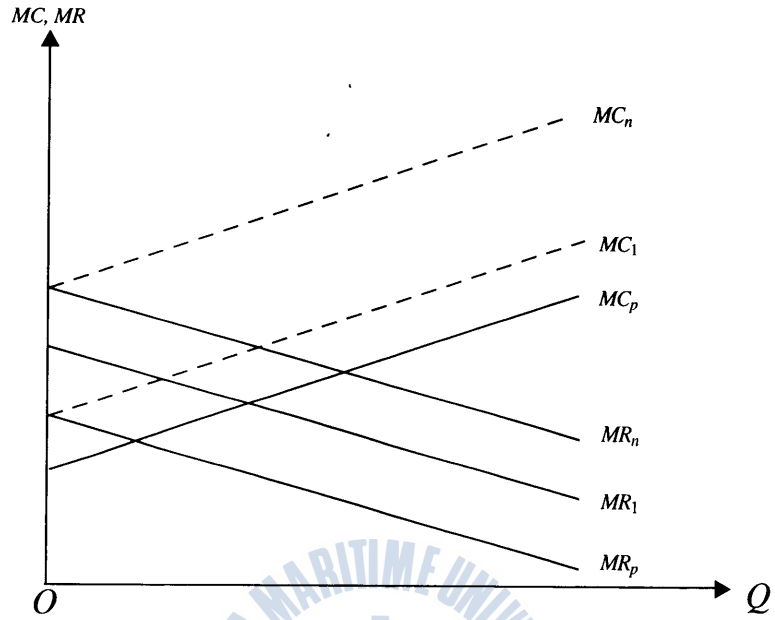
별기업 i 의 투자규모와 현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1>에서 보듯이 한계수익곡선은 독점적 경쟁시장을 반영하여 우하향하고 한계생산비용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식(5)에 의해 한계수익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기업은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규모는 Q_i^* 가 된다. 이것은 계획생산량(planned production)이다. 그러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생산에 들어갈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한계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6)에 의해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Q_i 에 생산이 이루어진다. 즉 $Q_i^* > Q_i$ 이 성립되어 거래투자비용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항시 과다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현지 생산에서 수익률을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한계거래비용이 실제 생산량이 0이 될 정도로 크게 되면 이 기업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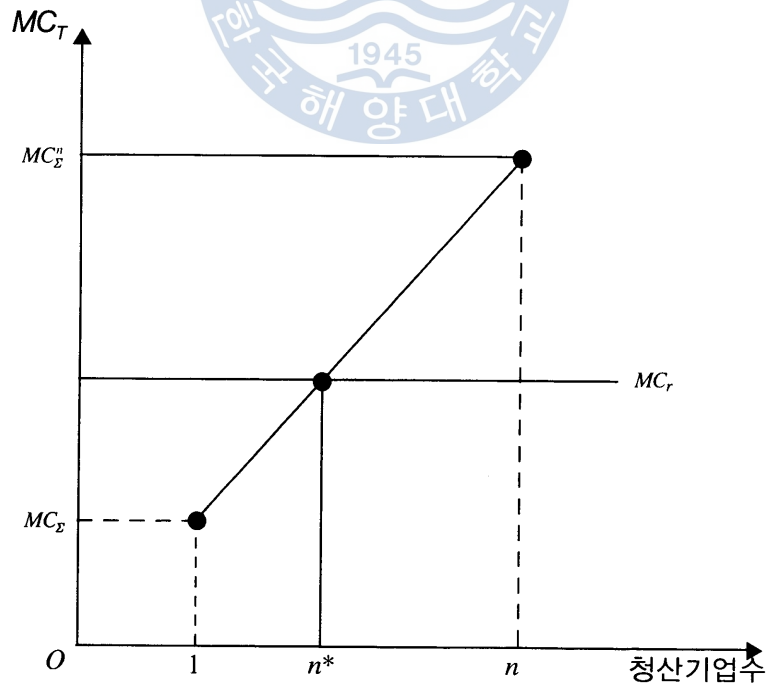
이 모형을 전체 투자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그림3-2>이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투자기업수가 n 개이고 각 기업은 한계수익이 다르고 한계생산비용과 한계거래비용은 같다고 가정한다. 각 기업마다 한계수익의 차를 반영하기 위해 한계수익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계수익을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은 각 개별기업이 나름대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해외로 이전하여 독점적 렌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3-1> 목표생산량과 실질생산량



〈그림 3-2〉한계거래비용과 청산기업수의 관계



〈그림 3-3〉청산기업수의 결정

이때 한계거래비용이 MC_T^1 라고 한다면 한계비용이 MC_T 곡선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의 실질생산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청산될 것이다. 다음 한계거래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청산기업들의 수가 증가될 것이고 결국 한계거래비용이 MC_T^N 수준이 되어 한계비용이 MC_N 이 된다. 이때 마지막 n 번째 기업도 청산됨을 알 수 있다. 이런 관계에 의해 한계거래비용과 청산기업수에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MC_T \cdot C$ 곡선이라 하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3>이다. 이때 중국시장에서 실제 한계거래비용이 MC_T 이라면 이 한계거래비용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청산기업수가 결정된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n-n^*$ 개의 기업이 청산되고 n^* 개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고 <그림 3-1>에 보듯이 각 개별생산기업도 각각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MR_p 수준보다 낮은 한계수익을 갖는 기업들은 모두 청산되고 이 수준보다 높은 한계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할 것이다.

3.2.2 비교정태분석

이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세 가지가 존재한다. 즉 한계거래비용, 한계수익, 한계생산비용이다.

(1) 한계거래비용이 변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기업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투자국의 시장에 익숙해지고 유통판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현지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차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한계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하면 <그림 3-3>에서 한계거래비용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한계거래비용과 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 청산기업수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은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결정할 때 총비용을 생산비용만 계상하지만 현지 생산할 때 거래비용을 인식하고 그 비용을 감안하여 이윤극대 생산량을 결정한다.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새로이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 전에는 청산되어야 할 기업들이 청산되지 않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업수는 감소한 것이고 현지 기존기업들은 한계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한계거래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위의 반대 논리로 한계거래비용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어 청산기업수는 증가할 것이다.

(2) 한계생산비용이 변화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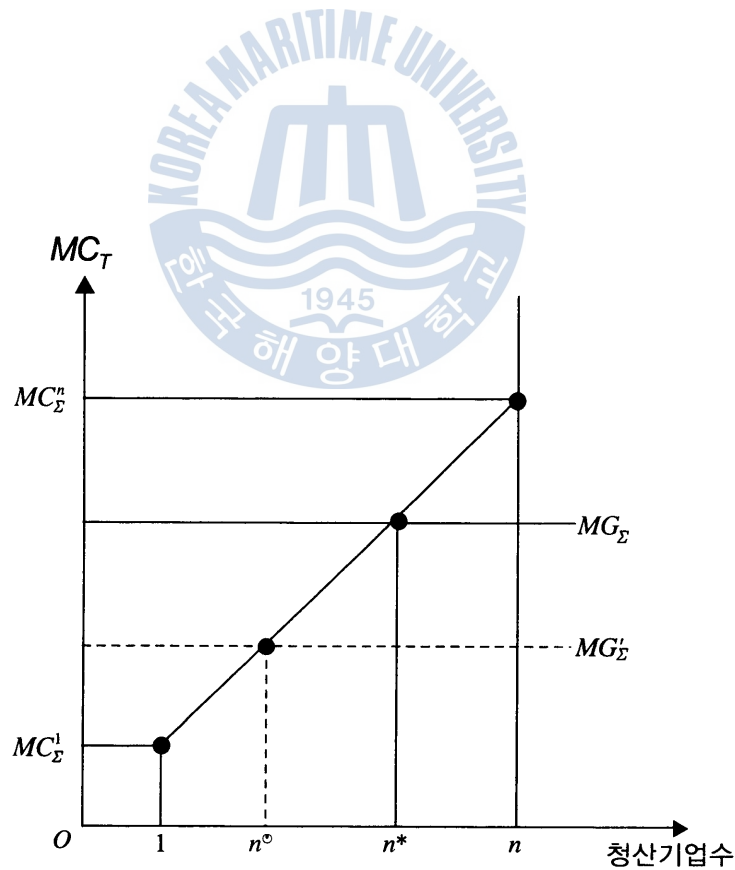
기술혁신이 발생했거나 생산요소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한계생산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한계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그림 3-2>에서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유

도되는 곡선은 <그림 3-5>에서 보듯이 위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청산기업수는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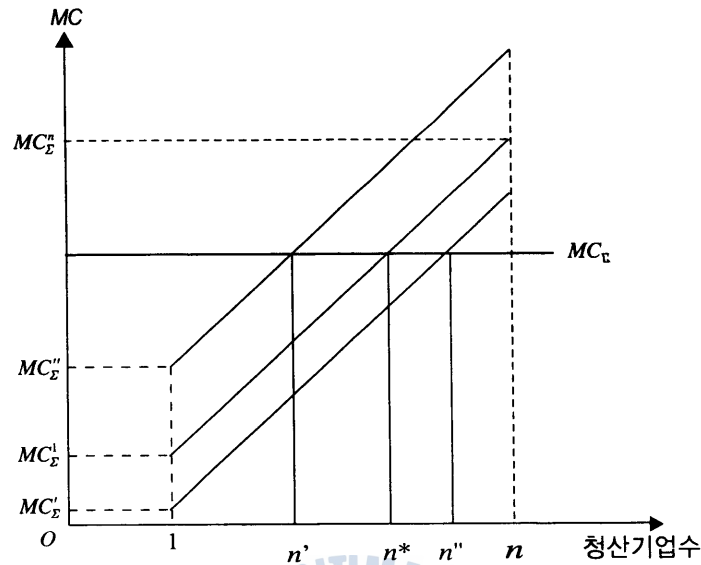
만약 한계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는 기존의 기업들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청산기업수는 증가할 것이다.

(3) 예상한계수익이 변화하는 경우

일부기업의 한계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한 경우 <그림 3-2>에서 해당기업의 곡선이 위로 이동하고 이것은 <그림 3-5>에서 곡선은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기존기업의 이윤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새로운 기업 중에서 청산기업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림 4-4>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할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그림 3-5〉한계생산비용, 한계수익이 변화할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4. 결론

여기서는 한국기업들이 한편에서는 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에 실패하여 철수하는 기업이 많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결정시에는 거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현지 생산할 때에 그 거래비용을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됨에 따라 투자규모와 생산규모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항시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잉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결국 청산되거나 철수하게 된다.

결국 이런 과잉투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비용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비용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은 정보취득비용을 지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망된다. 첫째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이다. 즉 자본여력이 많은 대기업이 지불하여 얻는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시장에 대한 거래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나 공공기관이 거래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투자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공공재로서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부담을 낮춰주어야 한다. 셋째 중국시장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200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실태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輯 제1권
- 김길성 (2003), 대중투자기업의 전략적 적합도와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1호
- 김동현 (200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현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 김윤태 (1999), 중국투자 한국기업의 현지적응 연구, 中國學研究 제 17 호
- 김홍석, 이명주 (2003),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 권영철 (1997), 해외진입장벽과 해외진입방식 선택: 조직실패개념의 적용, 경영학연구 제 26 권 제 1 호 (pp.1-16)
- 박동열 (1995), 한국중소기업의 중국진출현황과 문제점 분석, 울산대학교 경영학 연구논문집 제 2권 2호
- 백권호 (1992),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 대외 경제 정책연구원
- 석상준 (1994), 중국산동성에 대한 투자환경분석, 산업기술정보원
- 송재훈 (1999),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북방학회논문, 5권 1 호
- 송재훈 (2003), 투자결정요인과 기업특성요인이 한국기업의 대 주욱 투자전략 수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 40호(pp.1915-1935)
- 안동규 (1993),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분석과 전략적 대안,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국제경영학원
- 안종석 (1993),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실태와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용남 (1997), 한국기업의 중국산동반도 투자현황 및 부각되는 문제점, 산업경영연구 6권 2호
- 유승훈, 이명수 (1995),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에 있어 소유권결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 24권 1호, 한국경영학회, pp. 129-166
- 유원혁 (2001), 한국기업의 중국투자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논총 6 권 1 호,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 이근 (1999),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교연구: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시사, 경제논집 38권 1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지만수 (2003), 한국기업의 대중국권역별 진출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an, R., Lunati, M.R. and O'Connor, D. (1998) Labor market aspects of state enterprise reform in China, OECD Development Center, Technical Papers 141
- Fu, Xiaolan (2004)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NY: Palgrave Macmillan
-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 <http://korea-china.korcham.ne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